

이강인 활용법... 벤투호의 고민과 선택

오늘, 코스타리카와 A매치 맞대결
기자회견서 “팀에 필요할 때 기용”
소집 때 예고한 ‘전술 변화’ 계획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을 이끄는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강인(21·마요르카) 활용법을 두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벤투 감독은 코스타리카와 평가전을 하루 앞둔 2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강인은 팀이 필요할 때 활용할 것”이라며 “경기에 나설 최고의 선발 라인업을 선택할 텐데 이강인이 여기에 해당할지 경기 중에 투입이 될지는 추후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 대표팀은 23일 오후 8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코스타리카와 친선경기를 펼친다.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개막 전에 해외파를 포함한 ‘안전체’를 시험할 기회는 이번 코스타리카, 카메룬(27일)과 두 차례의 평가전뿐이다.

최고의 멤버를 꾸려야 하는 벤투 감독과 그 안에 들어야 하는 선수들에게 모두 중요한 시간이다.

그중에서도 1년 6개월 만에 대표팀에 복귀한 이강인이 벤투호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다만 벤투 감독은 이강인에게만 모든 이목이 쏠리는 것은 경계했다.

그는 “언론과 팬들이 선수 개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감독 입장에서 팀이 더 중요하다. 선수 개개인 아닌 팀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투 감독은 코스타리카전에 대해선 “항상 하던 대로 준비했다. 주초에는 선수들의 회복에 최대한 신경을 썼다. 일부 선수가 늦게 합류해 회복이 조금 더 필요했다”며 “모든 선수가 훈련에 참여한 건 두 차례로 전체적인 준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을 하루 앞둔 22일 파주 NFC(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에서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준비운동을 하며 몸을 풀고 있다. 대표팀은 23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코스타리카와, 27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카메룬과 평가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비 과정은 좋았다. 내일 좋은 경기를 해 결과를 얻고 원하는 방식으로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예고한 대로 대표팀은 9월 A매치에서 ‘변화’도 시도할 계획이다.

벤투 감독은 “소집 시작할 때 다른 것들을 시도하겠다고 했는데, 전술적인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다. 두 경기에서 같은 전술 시스템을 쓰지 않을 생각”이라며 “이전에 사용했던 시스템도 있을 거다. 전체적인 스타일은 동일하게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반부터 오랫동안 구축한 우리의 플레이 스타일이 있는데, 손흥민의 경우 원거리와 스트라이커, 공격수 및 등 다양한 포지션에서 활약해 왔다. 다음 경기에선 어떻게 활용할지 지켜보겠다. 많은

선수가 하나의 포지션 이상을 소화할 수 있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대표팀의 뒤를 든든하게 지킬 수비진 조합도 여러 옵션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풀백 5명 중 오른쪽 풀백에 김태환(울산), 김문환(전북), 윤종규(서울) 등 3명을 소집한 벤투 감독은 “고민이 있다가보다는 옵션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윤종규는 우리와 많이 뛰지 못했던 선수인데, 어떻게 활약하는지 지켜보기 위해 선발했다. 여러 가능성을 비교해 본 뒤에 더 고민해서 월드컵 멤버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을 이끄는 파울루 벤투 감독이 코스타리카와 평가전을 하루 앞둔 2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대한민국, 첫 겨울 월드컵 뜨겁게 달군다

(2022 카타르)

‘더 뜨겁게, the Reds’ 응원 슬로건 확정
4만 건 응모, 지난 대회보다 12배 많아

2022 카타르 월드컵 때 태극전사 응원에 사용될 슬로건이 ‘더 뜨겁게, the Reds’로 확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카타르 월드컵 축구대표팀 응원 슬로건을 ‘더 뜨겁게, the Reds’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해진 슬로건 문구는 한국대표팀의 카타르 현지 훈련 캠프와 숙소, 미디어 센터 등에 부착될 예정이며 월드컵 기간 중 국내에서 진행될 거리응원과 ‘붉은악마’ 서포터즈의 응원가, 각종 응원 물품, 축구대표팀의 마케팅 상품에도 활용된다.

선택된 슬로건은 대한축구협회와 ‘붉은악마’가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24일까지 축구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협회 SNS를 통해 진행한 이번 공모에는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의 응모작 3600여 개보다 12배나 늘어난 총 4만 2000여 개의 문구가 접수돼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축구팬들의 뜨거운 열기가 반영됐다.

당선작을 제출한 여성 축구팬 임수정 씨에게는 카타르 월드컵 한국대표팀의 조별리그 첫 경기 우루과이전을 현장에서 관전할 수 있



대한축구협회가 2022 카타르 월드컵 응원 슬로건을 ‘더 뜨겁게, the Reds’로 결정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는 항공, 숙박, 티켓이 제공된다.

이정섭 대한축구협회 경영본부장은 “최초로 겨울에 열리는 월드컵이라 한국은 추운 날씨지만, 6월에 열린 역대 어느 월드컵보다 더 뜨거운 응원 열기를 만들어 보자는 의미를 담았다”며 “붉은 유니폼의 태극전사들이 중동의 뜨거운 사막보다 더 불타오르는 투혼을 그라운드에서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월드컵 응원 슬로건은 2002년 ‘Be the Reds’를 시작으로 ‘Reds go together’(2006), ‘승리의 함성, 하나된 한국’(2010), ‘즐거라, 대한민국’(2014), ‘We, the Reds’(2018)로 이어지며 응원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다.

정민수 기자

부천시청, 혼계영 400m 남녀 동반 우승



제7회 회장배 전국수영대회
계영 이어 2개 종목서 나란히 금

부천시청이 제7회 회장배 전국수영대회 남녀일반부 혼계영 400m에서 동반우승을 차지했다.

부천시청은 22일 울산광역시 문수실내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일반부 혼계영 400m에서 김민규, 서민석, 최종훈, 진가연이 팀을 이뤄 3분55초69로 정상에 올랐다.

부천시청은 이어 열린 여일반 혼계영 400m 결승에서도 박미정, 이소정, 이승경, 안유진이 한 팀이 돼 4분22초36으로 패권

을 안았다.

앞서 남녀일반부 계영 400m에서 동반우승을 차지했던 부천시청은 이번 대회 2개 종목에서 동반우승을 달성했다.

진가연은 남일반 배영 100m와 계영 400m, 혼계영 400m에서 우승하며 3관왕에 올랐고 안유진도 여일반 자유형 1500m와 계영 400m에 이어 혼계영 400m에서 금메달을 추가해 3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또 남일반 평영 200m 결승에서는 조성재(고양시청)가 2분12초22로 서장호(세종시수영연맹·2분30초23)를 꺾고 우승했고, 남고부 평영 200m 결승에서는 현수환(인천체고)이 2분17초18로 심승리(부산체고·2분22초36)와 김유민(서울 오금고·2분25초09)을 제치고 정상에 올라 평영 100m 1위에 이어 2관왕이 됐다.

정민수 기자



22일 전남 구례군 구례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4회 구례대학장사씨름대회에서 대학부 개인전 (왼쪽 사진부터) 경장급 우승자 전성근(경기대), 소장급 우승자 임주성(경기대), 용사급 우승자 이태규(경기대), 역사급 우승자 임수주(경기대)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씨름협회 제공

경기대, 구례대학장사씨름에서 금메달 4개 품었다

전성근·임주성·이태규·임수주 우승
용인대 이준형, 용장급서 1위 입상

경기대가 구례대학장사씨름대회에서 4체급을 석권했다.

경기대는 22일 전남 구례군 구례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4회 구례대학장사씨름대회 겸 구례전국여자전하장사씨름대회에서 경장급(75kg급) 전성근과 소장급(80kg급) 임주성, 용사급(95kg급) 이태규, 역사급(105kg급) 임수주가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경장급 결승에서는 전성근이 임상빈(경남경남대)을 상대로 발목걸이에 이은 잡채기로 첫 판을 따낸 뒤 둘째 판에서도 안다리승부를 결정지며 우승을 차지했다.

또 소장급 결승에서는 임주성이 임재민(경북영남대)을 상대로 첫 판을 밀어치기에 이

은 오금당기기, 잡채기 기술을 연결시켜 승리를 거둔 뒤 둘째 판에서도 들배지기에 이은 잡채기 기술로 승부를 갈랐다.

용사급 결승에서는 이태규가 김효겸(인천안화대)을 만나 들배지기에 이은 호미걸이로 첫 판을 따낸 뒤 둘째 판을 들배지기로 내줘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지만 셋째 판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광석화 같은 들배지기를 성공시켜 2-1로 신승을 거두고 패권을 안았다.

대학부 역사급 결승에서는 임수주가 송영천(단국대)을 상대로 들배지기로 첫 판을 가볍게 따낸 뒤 둘째 판에서는 장기전 끝에 들배지기로 승리를 거두며 장사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전성근은 올해 제36회 전국사·도대학장사씨름대회 정상에 이어 시즌 2관왕에 올랐고 임주성은 제76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 경장급 우승에 이어 두번째 정상에 등극했다.



판에 들배지기 되치기로 1-1을 허용했지만 마지막 판에 들배지기에 이은 잡채기 기술로 서준혁을 꺾고 1위에 입상했다.

한편 대학부 경장급 이동혁(인하대)과 장사급(140kg급) 김민호(경기대)는 각각 3위에 입상했다.

정민수 기자

장애 뛰어넘은 스포츠 축제 개막

도아울림체육대회, 23~24일 용인에서
1236명 선수, 탁구 등 5개 종목 참가
장애인·비장애인 서로 이해하는 시간

‘장애인·비장애인의 화합 한마당’ 제4회 경기도아울림체육대회가 3년 만에 용인특례시에서 개최된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23일과 24일 이틀간 28개 시·군에서 1236명(선수 817명·임원 354명·보호자 65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게이트볼, 배드민턴, 탁구, 파크골프, 볼링 등 5개 종목이 진행된다.

장애인·비장애인 구분없이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처음 시작된 이 대회는 장애인 유형에 따라 지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기타장애, 비장애 등 5개 부문으로 나뉘 시·군 대항전으로 치러지며 개·폐회식은 별도로 열리지 않는다.

이번 대회에는 광주시가 70명(선수 47명·임원 19명·보호자 4명)으로 가장 많은 선수단을 파견하고 양주시(67명), 고양시(64명), 부천시(62명)가 그 뒤를 이었다. 안산시와 오산시, 등



제4회 경기도아울림체육대회가 23·24일 이틀간 용인특례시에서 3년 만에 개최된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제공

두천시는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종목별로 전 종목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혼합된 단체전이 진행되고 배드민턴과 탁구는 개인전도 열린다.

허범행 도장애인체육회 경영본부장은 “지난 2019년 첫 대회가 열린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열리다보니 준비 과정에서 다소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며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만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민수 기자